

마태복음

■ 고난을 통한 영광(231101)

1. 마태복음의 문맥

- 1.1 천국백성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(마 5-7, 10, 13장[18; 24-25장])
- 1.2 천국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난: 배척, 결핍, 고난(마 14장)
- 1.3 누가 천국의 백성인가?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!
- 1.4 예수께서 왕으로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심(17장)

2. 예수님의 수난예고(16:21-28)

- 2.1. 제자들의 참된 신앙고백 이후에 예수께서 ()과 ()에 대해 예고하심(마 16:21)
- 2.2.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음(마 16:22)
 - 2.2.1. “주여 그리 마옵소서!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.”
 - 2.2.2. 하나님 나라의 ()이었던 베드로가 ()이 되는 순간!
 - 2.2.3. 그 베후에 존재하는 사탄의 유혹: “사명보다 ()에 더 관심을 둬”
- 2.3. 제자도의 본질: “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”(마 16:24)
 - 2.3.1. 십자가 = 자기 부인 = 자신의 ()을 내려놓고, 하나님의 ()을 수용함(겔세마네[마 26:39])
 - 2.3.2. 그것이 천국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
 - A. 자기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을 상실(마 16:26)
 - B. 주를 위하여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은 천국, 곧 ()을 소유
 - C.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—자기 뜻대로 살고—생명, 곧 영생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?
 - D.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, 각자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실 것!(마 16:28)!

3.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(17:1-8)

- 3.1. 예수께서 변화산에 오르심
 - 3.1.1. 세 명의 제자: 베드로, 야고보, 요한
 - 3.1.2.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자들(마 16:28)
- 3.2. 예수님의 변모
 - 3.2.1.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짐(마 17:2) → 왕으로서의 영광!
 - 3.2.2.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(시 104:2; 단 7:9; 계 1:16)
 - 3.2.3. 성도들 역시 부활할 때 가지게 될 몸의 형체(빌 3:21)
- 3.3.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
 - 3.3.1. 구약성경 전체는 ()과 ()로 묘사(마 22:40; 눅 16:16; 행 24:14; 롬 3:21)
 - 3.3.2. 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(말 4:4-6)
 - 3.3.3.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
 - 3.3.4. 이때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기념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고자 함(마 17:4)
- 3.4.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(마 17:5)
 - 3.4.1. 예수님의 정체성: “이는 내 사랑하는 ()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”

3.4.2. 제자들의 반응: “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!”

3.4.3. 제자들이 엎드려 두려워함 →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(단 6:26)

4.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(17:9-13)

4.1.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상의 이야기에 대한 침묵을 명하심(마 17:9)

4.1.1. 자칫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심

4.1.2. 예수님의 죽음, 부활, 승천 후에야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선포됨

4.2. 제자들의 질문: “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은?”(말 4:5-6)

4.3. 예수님의 답변: “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” → 침례 ()을 가리키심!

4.4. 제자들이 이를 깨닫게 됨(마 17:13) → 배워 깨달아가는 제자(마 13:51; 16:12; 17:13 등)

4.4.1. 사람들은 실제로 엘리야가 올 것을 기대함

4.4.2. 그러나 실제로는 엘리야의 ()과 ()을 가진 사람의 등장(눅 1:17)

4.4.3.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약속된 엘리야는 다른 아닌 침례 요한

4.4.4. 능력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주목해 보게 함

5. 변화산 아래의 치유(17:14-21)

5.1. 사건의 전말

5.1.1. 한 사람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옴

5.1.2.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함

5.1.3. 예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심 → 왕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심

5.2.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: ()이 작은 까닭(마 17:20)

A.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가져야 할 어떤 물질이 아님

B. 예수님과 무관한 낙관적인 마음의 태도나 확신도 아님

C. 문맥상 믿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가지신 ()과 ()에 관한 확신

D. “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”

5.3. 예수님의 두 번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고(마 17:22-23)

6. 성전세를 내심(17:24-27)

6.1. 매년 인구조사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 성전 유지를 위해 내야했던 세금

6.2. 성전세를 걷는 자들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대변

6.2.1.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?

6.2.2.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한 시도

6.3. 예수님의 답변

6.3.1. 성전 주인의 아들은 당연히 성전세로부터 면제(마 17:25)

6.3.2. 그러나 성전세를 내기로 하심: “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!”(마 17:27)

6.3.3. 신앙의 (): 옳기 때문에, 그것을 반드시 주장하고, 관철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!

6.3.4. 더 나은 사랑, 섬김, 배려를 위해 제3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음(고전 8:13)

6.4. 성전세를 위해 예지의 능력을 발휘하심: 물고기 입 속의 한 세겔(마 17:27)